



즉시 배포용: 2023년 10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4,000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펜스 상용화 기금 3차 신청 접수
생명과학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전염병 및 기타 공중 보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53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뉴욕주에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 성장 견인

신청 및 기금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4,000만 달러 규모의 바이오펜스 상용화 기금(Biodefense Commercialization Fund)에 대한 3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확장되고 있는 생명과학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동시에 심각한 전염병 건강 위협을 해결하는 생명과학 혁신의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설립 이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전염병 위협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유망한 진단, 백신, 치료제 및 기타 혁신을 개발하고 있는 11개 신생 기업과 13개 학술 기관에 2,53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오펜스 상용화 기금과 같은 프로그램은 뉴욕주를 전염병 발견과 개발의 발전의 선두에 서게 하는 동시에 뉴욕주의 생명과학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우리는 상당한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커미셔너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주도 하에, 우리는 혁신을 촉발하고 주 경제를 성장시킬 주요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펜스 상용화 기금은 이미 학술 기관 및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감염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견하고 생명과학 산업에서 뉴욕의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현장 진료 진단, 새로운 시퀀싱 및 병원체 감시 도구, 제조 및 진단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유망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효과적인 통제의 핵심인 감염 및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식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바이오피스 상용화 기금을 통해 수여되는 보조금은 심각한 전염병을 식별, 치료 및 예방하는 고급 솔루션을 시장에 출시하여 확장되는 생명과학 산업 전반의 성장을 장려하고 뉴욕주를 감염병 복원력 및 완화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 바이오피스 상용화 기금 수상자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입증하고 있으며, 외부 자금 1,110만 달러를 확보하고, 뉴욕주에서 1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건의 특허 출원을 하고, 3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각한 전염병 위협을 예방, 진단 또는 완화하기 위해 전도유망한 진단, 감시 및 기타 혁신을 개발하고 있는 적격 스타트업 기업은 최대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학술기관들도 생명과학 부문의 지적 재산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혁신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최초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및 프로그램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피스 상용화 기금은 뉴욕주 보건부, 컬럼비아 대학교,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및 두 벤처 펀드의 대표를 포함하는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생물 약제학 업계의 전문가 심사위원, 생명과학 벤처 커뮤니티, 학자들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및 평가한 후 권장사항을 ESD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보조금 수령자들이 생태 및 약학 산업, 벤처 투자, 학계 등에 소속된 멘토의 조언을 받아 개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수상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피스 상용화 기금은 뉴욕주의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생명과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러한 연구를 상업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정부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다각적인 이니셔티브에는 뉴욕주에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을 유치하고, 신흥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중요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며, 생명과학 관련 비즈니스와 고용을 뉴욕 전역에서 창출 및 확대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3억 2,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생명과학 분야는 바이오테크, 의약품, 바이오메디칼 기술, 라이프 시스템 기술 분야를 포괄하며, 노력의 대부분을 다양한 단계의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에 투입하는 조직과 기관도 포함합니다. 이 분야의 회사들은 매일 새로운 치료법이나 암과 신경계 질병과 같은 질병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및 제약 관련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농업 및 환경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도 현저한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